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友紀夫) 일본 전 총리

이번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아시아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아,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지 70년, 즉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며, 이와 동시에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해에 초청해 주신 점을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한일관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화제나 인생철학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세계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 국가들이 사이 좋게 협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 이 글은 2015년 11월 5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에 한일관계를 다시 바라본다> 특별강연을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집필한 글인 “近くて近い日韓關係をどう構築するか”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웃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서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끼리 증오하게 되면 서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이웃끼리 사랑을 나누면 서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한층 더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일본인들 대부분은 천황을 존숭(尊崇)하고 있습니다. 1990년 5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궁중 만찬회 자리에서, 현재 천황인 아키히토(明仁) 천황이 “한반도와 일본과의 길고 연이 깊은 교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쇼와천황(昭和天皇)께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 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상기됩니다.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 국민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생일을 맞이한 천황이 스스로 “간무천황(桓武天皇)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에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느낍니다.”라며 종래의 일본에서 금기시되어 온 발언을 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이 스스로 황실의 핏줄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것은 현재의

한일관계를 우려하고 과거에 교류가 왕성했던 시기의 한일관계를 다시 되찾고 싶다는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아울러 1994년 3월 천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참석한 궁중만찬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귀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사람들의 교류는 역사책에 밝혀지기 이전의 먼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귀국으로부터 다양한 문물이 일본에 전달되어 우리의 선조들은 귀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오랫동안 밀접한 교류를 하던 중 일본이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을 끼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러한 점에 대해 매우 슬픈 마음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변함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 국민은 과거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며 귀국 국민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천황께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진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신 것입니다. 저는 천황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각을 일본 국민이 공유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크게 전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5년, 즉 전후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가 발표되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평화에 대한 존중이나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까운 과거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存亡)의 위기에 빠뜨렸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뜻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 역사가 낳은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아시아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깊이 반성함으로써 독선적인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배제하고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관철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천황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일본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침체기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반성의 자세로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국권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이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 9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룩하고 기적적으로 전후부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경제는 버블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서 실패한 결과 경제불황의 시대가 이어졌으며, 국민은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관대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일부 일본인 사이에 혐한·혐중감정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결과 독선적이고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확산될 수 있는 소지(素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일본 국민의 불만이 정부, 관청, 기업의 유착 관계에 몰들어 버린 자민당 정권으로 향했습니다. 한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료의 안일한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하토야마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에서는 일본 외교의 중점을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일 안보를 기본으로 삼고 아시아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한·일, 중·일 관계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나보다 아내인 미유키(幸)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미유키는 한류에 빠져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한류 영화 등을 즐겨보기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손수 배운 것으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인사동길을 누빈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켜 많은 해군 병사가 순직했을 때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현충원으로 찾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의 사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황의 방한을 매우 기대했고, 당시 한일관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양호한 상태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노다(野田) 정권 후반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¹에 상륙했고, 나아가서는 천황이 사죄해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천황에 대한 발언에 관해서는 그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러한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발언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자신의 발언이 미디어를 통해 와전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경험이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든 험한 감정이 한 번 불붙으면, 원래 그러한 바탕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아베 자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담화를 재검토하는 의향을 밝혔고, 더 나아가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河野談話)도 검증하겠다고 언급하거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결과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전후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일본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짐으로써 마치 위안부의 강제연행까지 없었던 것처럼 다루는 미디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상식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윤리성이나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도 수수방관했던 것이 아니라 무라야마 총리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¹ 원문에서는 ‘竹島’로 표기됨.

아시아여성기금이 창설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과 함께 위안부들에게 관(官)과 민(民)의 협력으로 속죄하는 사업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고노담화의 계승은 물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속죄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가슴을 울리는 우치다 타츠루(内田樹) 선생님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종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엄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일조약으로 되어 있다거나 한국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꺼내지 말라고 초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에 대해 패전국이 깊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상 ‘무한책임(無限責任)’입니다. 정해진 배상을 수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고 패전국은 말할 수 없습니다. 승전국이든 구(舊)식민지든 ‘더 이상의 책임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책임을 깊어져야 합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한정적이긴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법제를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말하면서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행하는 전쟁에 자위대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헌법 위반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평화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한 갈통(Johan Galtung) 교수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친구의 소개로 저녁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갈통 교수는 자신이 제창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전혀 다르며 오히려 정반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개최된 강연에서는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단어를 도용하고, 내가 시도했던 본래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통 교수가 제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나 억압, 차별과 같은 전쟁의 불씨가 되는 ‘구조적 폭력’을 대화나

협력과 같은 적극적 수단을 통해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자기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수산업은 좋아하겠지만, 억제력의 명목으로 군사력을 높이면 군사력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충돌의 위험성 또한 증대하며 그 결과 억제력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성립시키려고 쓸데없이 중국위협론을 부추기고, 센카쿠열도 주변의 자위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국민을 자극할 뿐이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항일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30만 명의 병력 삭감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주변국, 특히 일본이 이러한 병력 삭감 계획을 높이 평가해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소위 아베담화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키워드로 여겨졌던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들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러일전쟁은 식민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라는 구절은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침략’에 대해서도 ‘사변(事變), 침략, 전쟁’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을 뿐, ‘침략’의 과거를 사죄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일본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뜻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을 뿐, 아베 총리 스스로는 ‘반성’이나 ‘사죄’의 마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자신감이 없는 것의 반증입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본래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담화가 아니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되어버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의 이홍구 전 총리나 이부영 전 의원과 함께 아베담화의 내용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베담화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8월 13일 서울에서 동아시아평화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시아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이 모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어

떻게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평화 선언에는 전후 70년을 맞이해 “일본이 평화헌법을 준수합니다.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4년 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원전이 없는 세계가 한시라도 빨리 실현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 나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형무소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난 후에 소위 정치범, 즉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수용했던 시설입니다. 그 중에는 유관순과 같이 고문으로 인해 돌아가신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시설을 견학한 후 나는 안마당에서 고문을 당해 돌아가셨거나 고통을 받은 분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헌화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미디어는 대부분 호의적으로 다루어 주었지만, 일본에서는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계자(土下座, 땅에 엎드려 조아킴) 외교는 굴욕적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왜 일본에는 아직도 과거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며칠 전에도 나의 행위에 분개한 우익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가두(街頭) 선전차(宣傳車)를 몰아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사방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전체가 우경화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본의 정권이 이와 같은 분위기를 슬며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적 엘리트층에는 반(反)지성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객관성이나 실증을 경시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자세이며, 정서적인 말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반지성주의와 싸우기 위해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양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베담화는 결코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으나,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 어른스러운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의 항일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고,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총리가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어서 2일에는 박·아베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기쁜 일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사이에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이 행해졌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결과 재한 일본인에게도 큰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군위안부 문제나 역사인식에 대해서 한·일 정상 사이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일한조약(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문제가 현안임을 인정하고 한국과 “조기 타결을 위해 교섭을 가속화”시킨다는 생각에 일치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생긴 것은 다행입니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간의 어려운 역사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한일관계의 호전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등 한국이 일본,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재확인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도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가 원래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잠시 나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일본의 패전 2년 후에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와 남동생이 있는 3남매입니다. 남동생은 유치원에 다녔을 때부터 조부인 이치로(一郎)의 뒤를 이어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스스로를 정치인에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었고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나보다 10년 먼저 정치인이 되었고,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나는 뇌세포를 본뜬 컴퓨터를 꿈꾸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건국

200주년 축제가 열렸는데, 미국인들은 자신이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인은 일본인인 것을 그다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일본을 보다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치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정치인에 대한 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내 미유키와도 이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유키는 내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두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려고 결의를 굳혔을 때, 하토야마 이치로가 제창했던 ‘우애(友愛)’야말로 지금의 정치에 가장 필요한 이념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조부인 이치로는 1954년에 총리가 되고, 1956년에 일소국교정상화를 이룬 후 총리를 사직했습니다. 그는 전후 바로 직후에 총리가 될 기회가 있었으나, 내각을 조직하기 직전에 공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 후에는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리하르트 쿠덴호프 칼레르기(Richard Coudenhove-Kalergi) 백작의 저서 『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 인간을 거스르는 전체주의 국가(The Totalitarian State against Man)』을 읽고 그에게 심취했으며, 그의 ‘우애’ 이념에 공감하여 그의 저서를 『자유와 인생(自由と人生)』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복귀한 이치로는 우애를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부조’로 설명하고, 우애사회의 실현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일소국교정상화협상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영토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았으나, 조부는 “영토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내일까지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시베리아에 억류 중이었던 일본인들이 귀국하도록 최우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조부 이치로가 지향한 우애의 원래 의미를 이와 같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추가하자면 하토야마 이치로가 귀환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인 억류자였습니다. 일본의 군속으로 징용되었던 한반도 출신자는 소련에서 모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된 소위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초당파(超黨派)로 구성된 의원간담회의 일원으로 그 당시 자민당 의원으로

서는 처음으로 동대구에서 개최된 이산가족회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 요청해서 한국에 양로원을 만드는 등의 시책을 강구했으나, 이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가족이 흩어져 있어야 하는 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쟁에 쉽게 참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법제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전쟁이 이와 같은 비극을 자주 낳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오스트리아 인인 쿠덴호프 칼레르기 백작은 자유와 평등의 가교로서 ‘우애’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두 전체주의로 뒤덮였던 20세기 초의 유럽에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으로 ‘우애’를 제창한 것입니다. 그는 우애의 이념을 바탕으로 범유럽주의를 주장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가 발족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서로 증오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이나 철강의 공동관리 등을 통해 협력을 쌓아갔습니다.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에도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관계가 깊어지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 움직임은 오늘날의 EU라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사실상 부전공동체(不戰共同體)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애가 결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정치에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우애는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의 존엄성 역시 존중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개성을 살리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애는 자립과 공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립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타자와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의존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공생이 없는 자립도, 자립이 없는 공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애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립

할 수 있는 이념입니다. 근대국가는 그 국가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타국과 다양하게 협력하거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합니다. 국가로서 어떻게 자립을 도모하며 타국과 공생해 나가는지가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자면, 현재의 일본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을 보다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로 옮기는 것이 우애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애의 이념을 보다 넓게 생각하자면, 이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립하고 자연과 공생하는지는 인류에 있어 가장 큰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글로벌리즘(globalism)이 기능하지 못하고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억제하려면 우애의 이념에 근거한 지역적 기구를 창설해 서로 이해하기 위한 장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역주의(regionalism)의 이념에 입각해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끼리는 결코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분쟁은 철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력 행사는 결코 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우애의 이념에 입각해서 동아시아가 부전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꿔 왔으며, '동아시아공동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올해 안에 경제 중심으로 통합되어 공동체를 창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가 운명공동체이며 2020년까지 동아시아공동체를 창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0개 ASEAN 국가들에 한·중·일 3개국이 뜻을 함께 하면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이 형성됩니다. 중국은 그 의사를 이미 표시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태도입니다. 나는 일본이야말로 그 선두에 서서 선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름 아닌 일본이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정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일본이 70년이라는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이나 국가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속죄를 할 수 있었다면, 동아시아가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크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총리 재임 중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중·일 3개국 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국의 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고 한·중·일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범위에 관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만 이익을 얻고 밖으로 향할 때에는 닫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면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배제한다는 명분 아래 편협한 지역주의를 만들어버릴 뿐이니까요. 그래서 동아시아공동체 참가국은 유연하게 구성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한·중·일 3개국과 10개 ASEAN 국가들이지만,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했을 때, 미국 일부에서 미국이 배제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논할 때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몽골이나 러시아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높은 관세장벽으로 둘러싸인 낡은 이미지의 공동체를 구상해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애를 배제함과 동시에 수레의 양 바퀴로 공동체를 전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교육, 문화, 경제, 환경, 에너지 등 협력하기 쉬운 분야부터 시작해서 안보나 통화 등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캠퍼스아시아 구상이 한·중·일 3개국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상은 유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구상을 모델로 삼았지만, 이상적으로는 아시아의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를 하나의 캠퍼스처럼 인식하고 배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중·일의 일부 대학 간 교환 학생제도나 단위교환 등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도쿄대학, 북경대학과 함께 공공정책과 국제관계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캠퍼스아시아 구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비용 없이 어떠한 강의든지 시청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인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캠퍼스아시아 구상 속에 아시아판 무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크의 보급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는 학력보다는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아시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편중에서 벗어나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등용하는 사회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예, 도예,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스포츠, 패션, 요리 등의 문화예술 분야는 아시아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향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쉬운 장르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였지만 나는 한 3주 전에 오키나와에서 ‘아시아 면로드(アジア麵ロード)’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오키나와 시민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면 요리와 면 문화의 차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서예나 도예의 교류는 한·중·일 3개국의 교류사업으로 대단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 재임 중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시아의 예술도시를 선정하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을 개최하며, 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술창조도시에서 다양성의 발휘와 융합을 거듭함으로써 문화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아시아 예술창조도시’가 머지않아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제안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구상’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한·중·일 3개국에서 세 도시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에 요코하마(横浜), 올해는 니가타

(新潟)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아시아의 일체성과 각 나라마다의 개성을 많은 아시아 사람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총리관저에서 최상룡 전 주일대사와 면담했을 때, 한·중·일 3개국에서 상설 오케스트라를 창설한다면 세 나라가 보다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단히 꿈이 있는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냉각기에 있지만, 최근 한국의 정의화 국회의장을 부산에서 만났을 때, 여전히 이 구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 구상이 한국으로부터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되었다고 들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에도 아시아인이 멤버로 구성되는 오케스트라를 창설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냉각기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본도 협력해서 이 꿈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관해 말하자면 올해 안에 ASEAN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중·일 3개국은 각각 ASEAN과의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한·중·일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성립된다면, ASEAN+3 사이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중·일 3개국은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서로 윈윈(win-win) 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체의 의미는 대단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중·일 FTA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선행한 결과 어려움 끝에 TPP는 대강 합의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면서 일본이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중·일 FTA 협상이 뒤늦게나마 가속화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PP는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각 나라의 산업에 직격타를 줍니다. 거기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우애의

이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자유무역에 맡긴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FTA에는 우애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체 이념에는 FTA가 맞지만, TPP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TPP를 체결함으로써 일본 농업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한·중·일 FTA 협상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TPP에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그리고 환경 공동체에 관해 말하자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장이자 자연에너지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한 손정의 씨가 4년 반 전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직후부터 흥미로운 제언을 해 왔습니다.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アジアスーパーグリッド構想)입니다. 몽골의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러시아의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국경을 넘어 송전선으로 일본에 보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종래의 석탄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는 배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원료 그 자체를 수요 지역에 보냈으나, 송전선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전력으로 변환 후 송전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일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시산에 따르면 몽골 고비사막의 자연에너지 잠재력은 풍력으로 8,100Twh/년, 즉 일본의 연간 소비전력의 8배이며, 태양광으로는 4,800Twh/년으로 이는 일본의 연간 소비전력의 약 4배가 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합하면 세계 총 발전량의 70%에 달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몽골,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협력해 고비사막을 자연에너지의 공급기지로 만들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송전망을 운영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웅장한 발상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풍력이나 태양광, 지열, 수력, 바이오 등 자연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송전망을 통한 전력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사할린은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함께 수력발전의 보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자연에너지의 공급기지로 유력합니다.

나아가서 나는 내몽골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막이나 사막화한 대지에서

도 식림활동과 함께 대규모 풍력 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설을 권유합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송전망으로 연결되고, 전력의 여력이 있는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에 보내짐으로써 동아시아가 에너지 공동체, 즉 운명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송전망에는 북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큰 일보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어려움을 수반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이 미래에 매우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는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EURO)의 사례에서 배우자면 동아시아공동체의 통화 통합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한편 과거처럼 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규모나 차이를 고려하면, 유럽처럼 각국의 통화를 없애지 않고 각국이 통화를 유지하면서,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정책을 유지한 채 역내를 몇 개 통화바스켓으로 구성된 '공동 통화 구상'을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서는 57개국 나라가 참여해 출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따라 AIIB에 참여를 보류했지만, 나는 이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과의 협력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중·일 협력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 각국에 줄 수 있는 안도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AIIB에 대한 참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다양하게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동아시아의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구성국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으로 출범하여 적당히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은 각국 20명 정도로 하고, 국가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어도 좋겠습니다. '동아시아의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취급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안보에 관해서는 '동아시아 평화회의'와 같은 회

의체를 의회 산하에 만들어 안전보장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 국가에서도 ‘동아시아 평화회의’의 논의를 수용하는 회의체가 필요합니다. 장래에는 유럽에서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이 초기 경계, 분쟁 예방, 분쟁 후의 재건과 같은 측면에 무게를 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준비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군기지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기지를 삭감하고, 군사의 요석(要石)이 아니라 평화의 요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를 오키나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논의의 장으로 창설하고, 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라 구속력을 부여해 의회로 격상시키면 됩니다.

나는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이 지역적이고 열려 있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고 세계지도상에 겹치며 투영하며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억제하여, 세계를 수많은 부전공동체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이미 부전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공동체끼리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이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상호 간에 우애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오히려 유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지구 전체가 하나의 부전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한 내용을 이상론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과 매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역사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좁혀졌다고 명확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목을 초래하는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고, 리커창 총리도 “협력은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특정한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세계정세 속에서 이상론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세계를 위한, 특히 동아시아를 위한, 그리고 특별히 한일관계를 위한, 이를 위해 지향해야 할 일본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엔트프 칼레르기

는 “모든 위대한 역사적 사건은 유토피아로 시작하지만, 현실로 끝난다(Every great historical happening began as a utopia, and ended as a realit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로 끝날지, 실현하게 될지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와 강인한 의지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